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19. No. 1, 2008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의 인지특성

유 경, 김락형*, 정은희**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언어치료실, 한방신경정신과*, 조선대학교 특수교육학과**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Specific Language Disorder and Borderline Intelligence-Language Disorder

Gyung Yu, Lak-hyung Kim*, Eun-hee Jeong**
Speech and Language Clinic, Dept. of Neuropsychiatry, Woosuk University Medical Center*,
Dept. of Special Education, Chosu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of the specific language impairment(SLI) and the borderline intelligence-language disorder(BI-LD).

Method : 30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18 children with SLI(K-WISC-Ⅲ FIQ above 85, Test of Problem Solving score below -1.25SD, verbal comprehension factor index of K-WISC III below 80), 14 children with BI-LD(K-WISC-Ⅲ FIQ 70~85, Test of Problem Solving score below -1.25SD, verbal comprehension factor index of K-WISC III below 80).

All students were evaluated with K-WISC III, Test of Problem Solving. full-scale IQ (FSIQ), verbal intelligence quotient (VIQ), Verbal Comprehension Index, and Test of Problem Solving score were compared between two groups.

Result : All subtests scores of PIQ in the SLI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BI-L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ubtests scores of VIQ. In the VIQ subtests, Information, Arithmetic, Comprehension score were higher in the SLI compared to the BI-LD, but the score of Similarities and Vocabulary were similar between two groups.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spite of the difference of PIQ, SLI and BI-LD have similar language abilities, and there are some different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between SLI and BI-LD

Key Words : intellectual characteristics, specific language disorder, borderline intelligence - language disorder, K-WISC III

투고일 : 2/10 수정일 : 2/19 채택일 : 3/9
* 교신저자 : 김락형 주소 :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Tel : 063-220-8617 E-mail : kimlak@hanmail.net

Ⅰ. 서 론

언어장애에 대한 진단에서 지능지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는 것은 단순언어장애이다.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란 정신지체나 자폐증, 뇌성마비, 청각장애 등과 같이 아동기에 관찰되는 발달장애로 인해 언어이해나 표현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제외한 언어장애아동인데, Leonard는 첫째, 언어능력이 표준화된 언어검사에서 그 결과가 최소한 -1.25표준편차 이하에 속하여야 하며 둘째, 비언어성 지능검사로 측정한 지능지수가 85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셋째, 청력에 이상이 없어야 하고 넷째, 간질이나 신경학적 문제로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없어야 하며 다섯째, 말 산출과 관련된 구강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에 심각한 이상이나 장애가 없어야 한다[1]고 하였다.

이처럼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일반적으로 지능 등의 인지적 결함 및 사회정서적인 문제, 감각적문제 등에는 결함을 보이지 않으나 단지 언어적인 능력에 있어서만 결함을 갖는 아동의 경우 진단되어진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에서 지능에 대하여 동작성지능이 85이상이라는 연구와 더불어 70이상의 아동들까지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진단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연구도 제시되어지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은 계속되고 있다.

DSM-Ⅳ(미국정신의학회, 1995)에서는 지능지수 71~84에 속하는 이들을 경계선지능(Bo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이라고 명명하고, 임상적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는 기타 상태에 포함[2]시키고 있다.

경계선지능아동 중 언어발달이 지체되는 아동인 경계선 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Boderline Intelligence Language Impairment : BI-LI)은 동작성지능이 경계선 범위(지능지수가 71~84)인 아동으로 동작성지능이 경계선 범위라는 점 이외에는 단순언어장애아동(Sip의 정의와 일치한다.

단순언어장애의 진단 기준에서 지능지수 85 이상의 제한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들이 있다. Leonard는[1] 비언어성 지능지수가 70~84인 아동들의 수행이 85이상인 단순언어장애 아동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 연구를 인용하면서 비언어성 지능의 한계 및 비언어성 지능지수 85의 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Plante는[3] 단순언어장애에 대한 Stark와 Tallal의 기준을[4] 통해 동작성 지능지수에 대한 기준을 재고하고 동작성 지능지수에 대한 기준을 70이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점은 정신지체를 배제하는 원칙적인 개념을 따르는 것으로 지능의 범위가 늘어남으로서 단순언어장애의 특성 안에서 지능의 역할을 좀 더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Leonard는[1] 비록 여러 연구들에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언어능력과 경계선지능 아동들과의 언어능력이 비슷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지능을 70~75이상으로 낮추어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낮은 능력을 가진 경계선지능 아동들의 실패와 위험이 감추어질 위험이 있으며 또한 지능의 범위를 늘릴 경우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너무 이질적인 집단이 될 수 있으므로 동작성 지능을 8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과 통계편람 DSM-IV-TR에 의하면[5] 경계선지능은 70~85 범위의 아동과 청소년의 지능에 대한 임상적 관심의 주목이 주어질 때 사용될 수 있는 범주인데, 학업적, 사회적 또는 언어적 영역에서의 장애가 경계선지능과 관계될 때 진단되어질수 있다고 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서의 언어

발달의 문제를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능의 정상분포를 고려할 때 인구의 12%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가진다[6]. 또한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 아동들은 임상현장에서 단순언어장애나 학습장애 아동들만큼이나 자주 만날 수 있다.

최근 단순언어장애 아동뿐만이 아니라 경계선지능 아동들에 대한 언어특성에 대한 연구[7-11]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비슷한 언어수행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7-10], 한편 유 경 등은[11] 경계선지능 아동들 속에서도 각기 다른 언어수행능력을 보이는 그룹이 있음을 확인하는 연구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아동에서의 K-WISC-Ⅲ 검사의 언어성지능과 동작성지능, 전체지능 및 언어평가를 통하여 언어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고, 더불어 지능검사의 소검사 프로파일결과를 통해 두 집단 사이의 인지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연구되어지는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그리고 두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단순언어장애아동(SLI) 18명과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 아동(BI-LI) 12명으로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아동이다. 연구의 진행은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부모의 동의서 작성 후에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진단과 평가는 특수교사 자격과 언어치료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아동의 연령은 9-12세이며 두 집단의 평균연령은 단순언어장애아동은 10.42세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이 10.55세이고, 성별은 단순언어장애아동은 남자가 8명, 여자가 10명이고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은 남자가 7명 여자가 5명으로 두 집단 간에는 연령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성별 차이에 의한 영향은 없었다. 두 집단 아동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아동의 나이와 성별

	나이			성별			
	M	SD	p*	남자	여자	합계	p**
단순언어 장애아동	10.42	0.85		8	10	18	
경계선지능언어 발달장애아동	10.55	0.83	0.782	7	5	12	0.710
전체아동	10.47	0.83		15	15	30	

* Mann-Whitney U test **Fisher의 정확한 검정

본 연구대상아동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Leonard의 기준[1]에 따라 비언어성 지능검사(K-WISC-Ⅲ)결과 지능이 정상범위(IQ 85이상)에 있으며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나 사회심리 문제, 감각기관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동으로 표준화된 언어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수용 언어 또는 표현 언어 수준이 자신의 생활연령 내에서 평균보다 -1.25표준편차 이하에 속하는 아동이다.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은 DSM-Ⅳ (미국정신의학회, 1995)의 경계선지적기능(Bo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이라고 분류된 기준에 따라 지능검사결과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과 -2사이에 속하는 범주의 아동 즉, 비언어성지능이 경계선범위(지능지수 71~84)에 있으며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나

사회심리적 문제, 감각기관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동으로 수용언어 또는 표현언어 수준이 자신의 생활연령 내에서 평균보다 -1.25표준편차 이하에 속하는 아동이다.

위의 언어능력에서 수용언어는 한국웩슬러 아동용지능검사 K-WISC-Ⅲ지능검사(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에서 언어이해 요인(상식, 공통성, 어휘, 이해)으로 측정하였으며, 표현언어는 언어문제해결력 검사(배소영・임선숙・이지희, 2000)로 측정하였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K-WISC Ⅲ, 언어문제해결력검사이다. 먼저 K-WISC Ⅲ의 동작성 지능지수와 K-WISC Ⅲ의 언어이해요인 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를 사용하여 대상아동을 선정하였고, 각 아동에 대한 K-WISC Ⅲ의 언어성지능, 동작성지능, 전체지능 및 소검사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 한국웩슬러 아동용지능검사 K-WISC Ⅲ[12)]

한국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곽금주・박혜원・김청택, 2001)는 만 6세에서 만 16세 11개월까지 적용 가능한 연령범위로 언어성검사와 동작성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이해, 지각조직, 주의집중, 처리속도의 4요인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WISC Ⅲ의 언어, 동작성 검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또한 각각의 소 검사 결과를 통해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또한 상식, 공통성, 어휘력, 이해에 대한 언어이해요인 검사를 통해 아동의 언어이해 능력을 알아보았다.

K-WISC Ⅲ의 언어성 검사의 소검사에는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가 있으며, 동작성 검사의 소검사에는 빠진곳찾기, 기호쓰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맞추기가 있다. 각 소검사마다 원점수에 해당하는 0-19점의 환산점수(score)를 받을 수 있고 평균은 10이다. 웩슬러지능검사의 지능지수는 개인이 속한 해당연령집단의 규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지능지수로 환산하는 '편차지능지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으로 개인이 속한 해당연령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할 수 있다.

2) 언어문제해결력검사[13)]

언어문제해결력검사(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2000)는 만 5세부터 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각각 상황이 다른 17장면의 그림판을 사용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각각의 질문을 통해 언어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세범주로 구성되어있다. 세 범주는 원인이나 이유를 파악하는 원인이유범주, 해결추론을 제시해야하는 해결추론범주, 상황단서나 미래상황을 추측하는 단서추측범주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세 범주를 통해 아동의 언어표현능력을 살펴보았다. 각 문항별로 아동의 반응을 0점, 1점, 2점 중 하나로 채점하였으며 각각의 합계를 세 범주(원인이유, 해결추론, 단서추측)에 적어 원점수를 구한 후 총점과 세 범주에 대한 원점수를 각 아동의 연령집단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퍼센타일(%ile) 점수대를 구하였다.

3. 자료처리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의 나이, K-WISC-Ⅲ의 언어성지능, 동작성지능, 전체 지능 및 각 세부항목의 지수와 K-WISC-Ⅲ 언어이해지수 및 언어문제해결력검사의 백분위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Mann-Whitney u test를 통해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언어문제해결력검사의 백분위 결과는 구간으로서 표현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중간값을 이용하여 기술하였다. 성별 차이의 집단 구분에의 영향에 대하여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모든 자료의 처리는 SPSS 13.0 program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Ⅲ. 연 구 결 과

1. 지능검사와 언어평가 결과

본 연구 대상아동의 언어성지능(VIQ), 동작성지능(PIQ), 전체지능지수(FSIQ)에 대한 결과와 언어능력평가결과는 다음 표 2, 그림 1과 같다.

표 2. 대상아동의 지능과 언어능력 평가결과

집단	N	언어성지능		동작성지능		전체지능		언어이해 요인		언어문제 해결력백분위	
		M	SD	M	SD	M	SD	M	SD	M	SD
단순언어 장애아동	18	83.28	8.94	93.89	7.15	86.67	6.64	77.83	7.99	19.56	12.44
경계선지능언어 발달장애아동	12	78.50	7.22	74.00	4.55	73.67	3.73	80.75	11.96	24.21	17.13
Total	30	81.37	8.50	85.93	11.66	81.47	8.55	79.00	9.68	21.42	14.40
P-value*		0.17		0.00		0.00		0.54		0.52	

* Mann-Whitney u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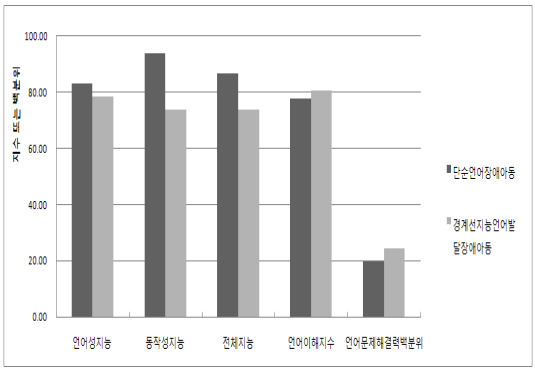


그림 1 대상아동의 지능과 언어능력 평가결과

표 2와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의 동작성지능과 전체지능은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언어성지능과 언어이해력 및 표현력검사 결과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지능검사의 소검사 결과

본 연구 대상아동의 지능검사에서 소검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3, 그림 2와 같다.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의 지능검사의 소검사에 대한 결과에서 언어성지능의 소검사인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 모두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작성지능의 소검사인 빠진곳찾기, 기호쓰기, 차례맞추기, 토막짜기, 모양맞추기 모두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이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검사들에 대한 집단 간 수행에 대한 결과를 수행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어성지능에 있어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산수, 공통성, 상식, 어휘, 이해 순으로,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은 산수, 공통성, 상식, 이해, 어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동작성지능에 있어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차례맞추기, 모양맞추기, 기호쓰기, 토막짜기, 빠진곳찾기 순으로,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은 기호쓰기, 차례맞추기, 모양맞추기, 토막짜기, 빠진곳찾기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3.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의 지능 소검사 결과

집단	단순언어장애아동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		Total		P-value*
	M	SD	M	SD	M	SD	
상식	7.89	2.08	6.67	1.78	7.40	2.03	0.12
공통성	7.94	2.18	8.08	3.03	8.00	2.51	0.91
산수	9.39	2.33	8.50	2.58	9.03	2.43	0.55
어휘	6.22	1.90	5.92	1.83	6.10	1.84	0.65
이해	6.06	2.41	4.75	1.71	5.53	2.22	0.18
빠진곳찾기	8.56	1.79	5.92	2.43	7.50	2.42	0.00
기호쓰기	9.44	2.91	7.17	2.44	8.53	2.92	0.03
차례맞추기	9.83	2.79	6.83	2.72	8.63	3.10	0.01
토막짜기	8.67	2.33	6.08	2.19	7.63	2.58	0.01
모양맞추기	9.56	1.92	6.67	2.06	8.40	2.42	0.00

* Mann-Whitney u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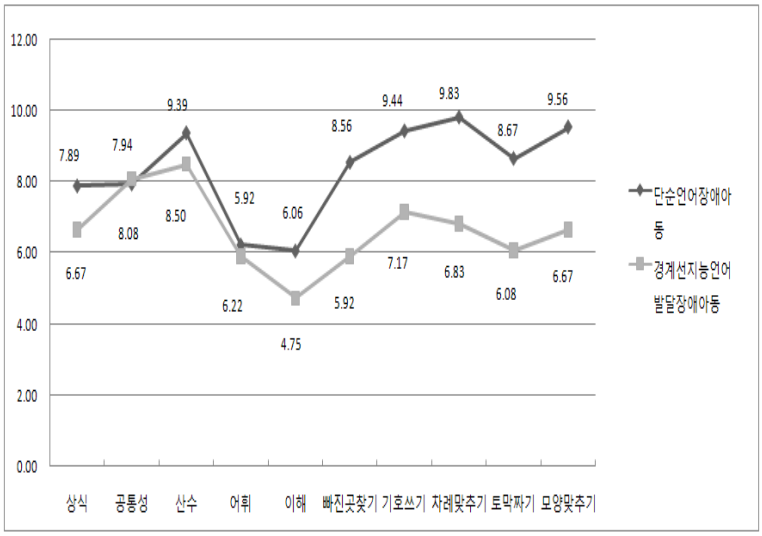


그림 2.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의 지능 소검사 결과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의 언어성지능 및 언어능력 평가에서 두 집단 간에 비슷한 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은 비슷한 언어수행을 한다는 여러 연구결과[3,7-9,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지능과 동작성지능이 월

등하게 높은 단순언어장애아동이지만, 경계선 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과 언어수행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행을 보이는 점은 지능과 언어능력이 단순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며, 언어능력에는 지능 외에 또 다른 변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언어처리에 고유한 기능이 따로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여러 연구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 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의 비슷한 언어수행결과를 보이는 점을 제시하면서 두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또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기준 지능을 85이상이 아닌 70이상으로 할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록 언어적수행이 비슷하다고는 하나 분명히 동작성지능이 더욱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능력에 있어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와 비슷한 수행을 나타내는 단순언어장애을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과 같은 범주로 볼 경우 단순언어장애아동들 만의 고유한 언어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할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에 대해 Leonard는[1]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지능을 70~75이상으로 낮추어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낮은 능력을 가진 경계선지능 아동들의 실패와 위험이 감추어질 위험이 있으며 지능의 범위를 늘릴 경우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너무 이질적인 집단이 될 수 있으므로 동작성 지능을 85로 제한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경계선지능아동을 언어성우세경계선지능아동, 동작성우세경계선지능아동, 언어성동작성경계선지능아동으로 구분하여 언어능력을 살펴본 유 경 등의 연구에서는[11] 경계선지능아동일지라도 각각의 언어수행능력이 모두 다르다고 밝히고 있어 동작성지능이 언어수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즉, 언어수행에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동작성지능이 전체적인 언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주지만 언어수행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작성지능이 언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집단의 지능검사 소검사를 비교한 결과에서 동작성지능의 소검사 항목은 모두 단순언어장애아동가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에 비해 비슷한 점수 차이를 보이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언어성지능의 소검사에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상식, 산수, 이해에서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이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공통성과 어휘항목에서는 두집단에서 비슷한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언어성지능 및 언어이해 요인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 원인을 공통성과 어휘에 대한 수행능력 저하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점은 단순언어장애아동의 어휘산출에 대한 연구[15,16]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은 어휘산출에 특히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는 연구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공통성은 두 개념간의 관계성을 알아내는데 초점을 두는 것으로 질문의 초기에는 대부분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연상을 반영하는데(예: 우유와 물의 공통점은), 결국 이 검사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측정하는 소검사로서 지능검사의 언어이해력 소검사 가운데 이 소검사가 학습, 형식적 교육, 환경적 배경, 경험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는 것이다[17]. 즉 공통성요인은 아동의 학습경험이나 기타 외부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서 각 아동이 가진 고유한 언어능력을 대변해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소검사가 논리적, 추상적인 사고능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면, 단순언어장애아동의 공통성에 대한 능력에 대한 저하의 원인으로 논리적, 추상적 사고능력의 결함을 들 수 있

겠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논리적인 언어능력을 살펴보는 검사인 언어문제해결력검사에서 단순언어장애아동이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보다 더 낮은 수행을 보인 점과 관련을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보다 동작성지능이 높은 단순언어장애아동에서 논리적, 추상적인 사고능력이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보다 다소 낮은 수행을 보인 점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동작성지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수행능력이 비슷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인지능력에 대해 K-WISCⅢ 지능검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동작성지능의 차이는 있으나 언어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한편 이들의 지능검사 소검사결과를 통해 두 집단간의 인지능력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언어능력이 반드시 동작성지능으로 결론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언어발달지체의 원인을 지능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으나, 경계선지능 언어장애 아동들의 지능은 정신지체의 진단규준인 70이하에도 속하지 않으며 또한 경계선지능 아동들 가운데 정상언어 발달을 하는 경우 또한 임상에서 흔히 관찰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지능만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 전체집단의 수행결과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단순언어장애아동이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에 있어 어휘와 공통성이 비슷한 수행점수를 보인 점은 후속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단순언어장애아동과 경계선지능언어발달장애아동의 특성은 이후의 연구에서 기초자료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Leonard LB.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8.
2. 미국정신의학회.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Ⅳ). 서울: 하나의학사:1995.
3. Plante E. Criteria for SLI: The Stark and Tallal Legacy and Beyond,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1998;41:951-957.
4. Stark R, Tallal P. Selection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Defici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1981;4:114-122.
5. Sadock BJ, Sadock V. A. Kaplan and Sadock's Synopsis of Psychiatry Behavioral Science/Clinical Psychiatry. 10ed. Philadelphia, Lippincott & Williams Wilkins. 2007.
6. Mardis DD. Michael PS, Karen SD.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s of adults with co-morbid borderline IQ and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000;31:173-180.
7. 김수영.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특성. 춘천: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8. 황민아. 언어발달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산출. 음성과학, 2003;10(3):47-64.
9. 임종아. 경계선 지능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성 판단 및 오류수정 :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10. 박혜성 . 학령기 경계선 지능아동과 일반아동의 명료화 요구하기 수행비교. 서울: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1. 유 경 · 정은희 · 김락형, 학령기 경계선 지능 아동의 언어특성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2007;9(4):193-210.
12.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한국웩슬러아동지능검사(K-WICS-Ⅲ). 서울:특수교육. 2001.
13. 배소영, 임선숙, 이지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서울: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000.
14. Kiernan B, Snow D. Bound-Morpheme Generalization by Children with SLI : Is There a Functional Relationship with Accuracy of Response to Training Target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1999;.42:649-662.
15. 이윤경, 김영태.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의 낱말산출 능력: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8(1):1-19.
16. 김화수, 김영태.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읽기 특성 변인.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11(3):47-63.
17. 박영숙. 심리평가의 실제. 서울:하나의학사. 1994.